



광주소방학교, 마라톤대회서 ‘청렴 캠페인’

광주시소방학교는 지난 13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4년 MBN 전국 나주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청렴한 광주소방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소방교육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라톤대회에는 광주소방학교 교직원 20명이 참가해 광주, 전남, 전북 등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구와 함께 청렴한 소방문화를 홍보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며 시민들과 공유했다. 광주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청렴정책을 홍보하고, 직원 간 화합의장 마련, 행사 후 쓰레기 줍기 등 주변환경을 청소하는 등 청렴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광주소방학교 교직원은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광주소방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신세계안과, 안내렌즈삽입술 5천례 달성

광주 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지난 2002년에 지역 최초로 시작한 ICL 수술(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렌즈 삽입)이 5년 연속 ‘베스트 ICL 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10월 ICL 5000례를 달성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광주 신세계안과에 따르면 김 대표원장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ICL 및 알티플러스, 알티산, 알티플렉스 등 7가지의 렌즈삽입술이 가능한 권위자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표원장은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ICL 렌즈삽입수술을 기록해 개발사인 미국 STARR Surgical 사로부터 5000례 달성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ICL 렌즈삽입술은 근시 환자의 시력 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유수정제 인공수정체로, 각막과 수정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눈 속의 수정체 앞에 삽입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렌즈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 광산경찰, 불법촬영 범죄 근절 캠페인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과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광산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행정학과 학생 30명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탐지 장비 사용방법 사전 교육을 통해 대학 내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디지털 성범죄 등을 근절하고 대학 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캠퍼스 안심소식지’ 및 ‘불법촬영카메라 간이탐지카드’를 배부하는 등 캠페인과 병행했다. 이관형 광산경찰서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무엇보다 인식개선 교육과 112신고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기자**



완도고등학교, 헌혈 문화 확산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완도고등학교(교장 남경민)와 생명나눔단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헌혈 실천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식은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 원장과 남경민 교장 및 직원이 참석한 헌혈 증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남경민 교장은 “과거 청소년 시절 RCY활동을 하면서 헌혈이 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이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수 원장은 “교의 봉사활동 대학입시 미반영에 따른 고등학생 헌혈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헌혈 증진에 동참해 주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올바른 헌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 남구 진월동민 한마음축제 성황

광주 남구 진월동은 ‘제3회 2024 진월동민 한마음축제’가 지난 12일 진월복합운동장에서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알차게 진행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진월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된 한마음축제는 특별행사로 어린이그림 그리기 대회 식전공연으로 장구교실에 이어 댄스 공연과 함께 학생들의 춤으로 시작을 알리고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는 주민총회와 3부 장기자랑으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진월동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동민 대상 표창패 수여와 감사패 전달, 체합마당,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플리마켓 등 풍성하고 다양하게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마을잔치를 진월동 주민자치회가 마련했다.

자매결연을 맺은 영광군 연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행사 개최 축하와 주요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준명 기자**



대촌중 ‘광산농악’ 한국민속예술제 대통령상

광주시는 ‘광산농악’ 전수학교로 지정된 대촌중학교가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청소년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지산농악보존회의 ‘지산용전결궁농악’은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지난 11~13일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촌중학교는 질곳마당, 오방진마당, 호허곳마당, 구정놀이 등으로 구성된 ‘광산농악’을 선보였다. ‘광산농악’ 전수학교로 지정된 대촌중학교는 전교생이 풍물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에 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광산농악은 마름동의 판굿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의 고싸움놀이농악·소춘농악, 산월동의 풍장농악, 옥동(평동)과 유계동(동곡)의 결립농악 등 광산구 지역의 다양한 농악을 집대성한 호남우도농악이다. **노병하 기자**



대한적십자사, 호우피해 가구 집수리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완도·진도를 찾아 집수리 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대한적십자사는 침수 피해가 큰 3개 가구를 선정해 기초생활물품을 전달하고,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아이티엔

이 500만원을 기탁했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침수 피해 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적십자사는 재난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준명 기자**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경찰 조사·활동 중단 예정

개그맨 이진호(사진)가 불법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고백하고 “남겨진 채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이진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죄송합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위해 글을 쓴다”며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고 털어놔다.

그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내가 사랑하는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일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내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다.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채무 관련 전화일까 심장이 뛰었고,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매를 맞는 것 같았다.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하고 벌을 받고 나면 적어도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일을 해



야 조금이나마 빚을 변제할 수 있었기에 그런 마음 역시 혼자만의 욕심이지 않을 까 섣뚱 선택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망쳐버린 지난날이 진심으로 후회스럽다.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받는 사람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나에게 실망했을 많은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내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이날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불참을 선언하고 해당 사실을 알렸다.

추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진호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 활동에도 비상이 걸릴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사생활 논란’ 라이즈 승한, “피해 죄송... 탈퇴하겠다”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라이즈’ 멤버 승한(사진)이 복귀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팀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라이즈를 전담하는 SM엔터테인먼트 위저드 프로덕션은 김형국·이상민 총괄 디렉터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승한의 복귀 발표로 인해 브리즈 여러분께 큰 상처와 혼란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승한이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복귀해 라이즈가 다시 한번 팀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더 큰 행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랜 시간 고민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복귀 소식 발표 이후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의견과 반응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니, 저희의 결정이 오히려 팬 여러분께 더 큰 혼란과 상처만을 드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두 총괄 디렉터는 승한 또한 멤버들



과 브리즈를 위해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의 결정을 존중해 라이즈 탈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승한은 지난 13일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편지를 남기고 “제가 팀에서 나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팬분들께도 더 이상의 혼란과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고 멤버들에게도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회사에게도 더는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자신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 노력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멤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던 라이즈와 브리즈의 관계가 저로 인해서 나빠지는 건 정말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